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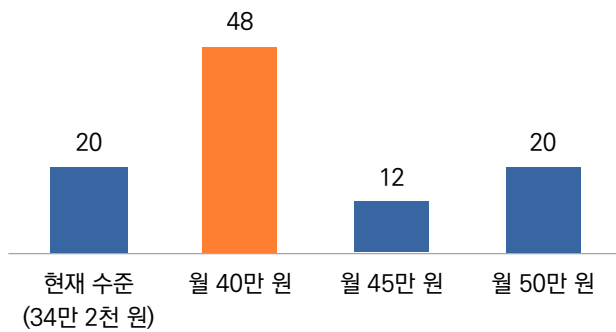


[기초(노인)연금 수급자 실태]

기초연금 수급자 절반가량, '1인당 적정 연금액은 월 40만 원 수준'!

- 대한민국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핵심축인 기초연금은 2007년 기초노령연금으로 도입된 이래,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%까지 확대 지급되고 있다(단독 가구 기준 최대 월 34만 2,510원).
-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'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' 결과에 따르면,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가 생각하는 '1인당 최대 기초연금 적정 수령액'은 현재 지급액(최대 월 34만 2천 원)보다 높은 '월 40만 원'이라는 응답이 48%로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. 이어 '월 50만 원' 20%, '현재 수준' 20% 등의 순이었다.
- 결과적으로 수급자 대부분(80%)이 현재 지급되는 월 최대 34만 2천 원의 급여액이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.

[그림] 1인당 최대 기초연금 적정 수령액에 대한 인식 (%)



※출처: 국민연금연구원,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, 2025.12.(2025년 3월말 기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2,000명(제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거주자), 면접조사, 2025.08.-2025.09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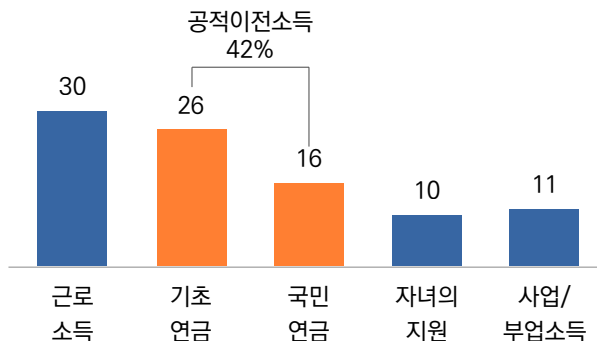
기초(노인)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소득 127만 원!

-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개인별 월 평균 소득은 127만 원으로 나타났다. 소득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'근로소득'(30%)이었다. 그러나 '기초연금'(26%)과 '국민연금'(16%)을 합산한 공적이전소득도 42%에 달해, 전체 노인 소득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. 이는 우리나라 은퇴 세대의 노후 생계가 연금 제도 등 국가 지원 복지 안전망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

[그림]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소득* (개인 기준)



[그림] 전체 월 소득 대비 소득원별 비중 (개인 기준, 상위 5개, %)



※출처: 국민연금연구원,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, 2025.12.(2025년 3월말 기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2,000명(제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거주자), 면접조사, 2025.08.-2025.09.)

*경상소득 기준(경상소득= 근로소득+사업·부업소득+재산소득+금융소득+개인연금+퇴직연금+주택·농지연금+공적이전소득+사적이전소득)